

“영원한 갑도 영원한 을도 없다”



‘갑과 을의 나라’ 강준만 지음

란’을 추구한다. ‘경상시의 삶은 개인주의적으로 살되 사회적 문제는 집단주의적으로 해결하자’고 한다. 을의 반란은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시대정신이다. 그러면서 저자는 더 많은 을들의 분발과 연대를 주문한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정치에 영원한 동지도 적도 없는 것처럼, 세상살이 또한 마찬가지다. 갑이 을이 될 수 있고, 을이 갑이 될 수도 있다. 갑이 느끼는 ‘을 위에 군림하는 맛’은 언제고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

다양한 사회 관계에서 갑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며, 을이 될 준비를 하라. 을을 배려하고 공생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결국은 갑이 사는 길이다. <인물과사상사·1만3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의 욕망에서 비롯된다.

그렇다면 한국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갑을관계의 출발점은 어디인가. 관준민비(官尊民卑)다. 관준민비의 역사는 조선시대로 올라가는데, 이는 나라를 패망으로 이끈 주 원인이 되기도 했다. 21세기에 관은 민을,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지배하는 종속적 관계는 지속되고 있다.

“방국의 위기가 고조되면서 자강이 생존 문제로 부각된 1900년대에 전성기를 맞고 일제강점기까지 지속된 사회진화론은 적자생존·약육강식·우승열패를 긍정했기에 오늘날 갑을관계의 이념적 원형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대한민국정부수립은 관이 갑으로서의 지위를 강화시킨 계기였다. 여기에 3공화국에서 6공화국에 이르는 기간 관료 조직의 ‘정치적 도구화’는 기존의 갑을관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 사실 왜곡된 관계의 핵심은 ‘돈 뜯어먹기’였다. ‘브로커’라는 말로 대변되는 중개인은, 실은 우리 생활에 직접은 도움을 주는 직업이다. 그럼에도 거의 모든 비리 사건에 연루된 이들이 ‘브로커’일 만큼 이들의 불법, 편법은 도를 넘는다.

예전에는 부동산과 법조 브로커가 일반적이었지만, 요즘은 입시, 취업, 이민, 선거, 병역 등 전 영역에 걸쳐 브로커가 활개를 친다. 21세기 한국사회는 가히 ‘브로커 공화국’이다.

저자는 이러한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을의 반

‘갑을 관계’는 2013년 한국사회 단면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이다.

남양유업 직원의 폭언사태, 대기업 간부의 여승무원 폭행 사태로 불거진 ‘갑’의 횡포가 파문을 낳고 있다. 갑을 관계는 어느 사회에서나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사람이면 누구나 어느 한 편에 속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왜곡된 관계에서 파생된다. 상대가 약자라고 판단되면 갑의 횡포는 교묘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갑질” “슈퍼갑”으로 표현되는 갑의 몰상식한 행태는, 더러 을이 자살이나 도산 같은 극단적 행위로 관계를 청산하지 않는 이상 단절되지 않는다.

그동안 한국사회의 명암을 추적해온 강준만 전북대 교수가 이번에는 갑을 관계를 분석한 ‘갑과 을의 나라’를 펴냈다. 저자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한국사회에 만연한 불평등 관계를 폭넓게 들여다본다.

일반적으로 갑을관계는 ‘을 위에 군림하는 맛’으로 해석된다. 타자 위에 군림함으로써 얻게 되는 인정욕구에서 비롯된다. 한마디로 살아가는 방식과 관련된 것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이들

우리가 믿는 것들의 진짜 모습은

‘프랑스식 세탁소’

정미경 지음



오늘의 작가상, 이상문학상 수상 작가 정미경의 ‘프랑스식 세탁소’가 출간됐다. 이번 작품집은 정 작가가 5년 만에 선보이는 네 번째 소설집으로 일상 이면에 도사린 인간의 허위 의식을 날카롭게 파헤친다. 작가는 이번에도 특유의 단단한 문장과 깊은 성찰을 통해 다채로운 인물들의 삶을 내밀하게 들여다본다.

표제작 ‘프랑스식 세탁소’는 복지재단 이사장인 나와 그가 사보에서 우연히 접한 프랑스인 요리사 르와조

의 이야기가 교차된다. 한국과 프랑스, 현실과 소설이라는 분명한 경계가 있음에도 나와 르와조의 이야기는 읽는 이로 하여금 묘한 울림과 서사적 상상력을 갖게 한다.

작가는 일곱 편의 단편을 통해 독자들에게 일관된 질문을 던진다. 치열한 욕망의 시대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 우리가 믿는 것들의 진짜 모습은 무엇인가라고.

<창비·1만2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포유류는 어떻게 진화해 왔을까

‘공룡 이후’

도널드 R. 프로세로 지음



공룡이 사라진 지구는 어떻게 변화했을까?

진화사에서 가장 매혹적인 동물이자 종생대를 지배했던 공룡은 지구상에서 홀연히 사라졌다. 그 생태적 빈자리를 채운 것은 엄청난 속도로 신생대의 기후와 환경에 적응한 다양한 육상동물, 특히 포유류였다.

로스앤젤레스 옥시덴탈 칼리지 지질학 교수인 도널드 R. 프로세로는 책 ‘공룡 이후’를 통해 신생대 지구와 생명의 역사를 개괄하면서 포유류는

물론 해양생물, 식물, 플랑크톤에 이르기까지 신생대 생물 진화의 맥락을 소개한다.

고생물학과 지질학 연구들을 중심으로 고지자기학, 고기후학 등의 여러 학문을 통해 6500만 년에 걸친 신생대의 역사를 시대별로 상세히 다룬다. 기후와 지각, 해양의 변화와 그에 따른 생물상의 변화가 옛이야기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뿌리외이피리·2만80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내 아이가 접하는 모든 것의 유해성에 대하여

‘기업에 포위된 아이들’

조엘 바칸 지음



“한국의 어느 부부는 태어난 지 석 달 된 딸아이를 아파트에 홀로 남겨둔 채 근처 PC방에 나가 ‘월드오브 워크래프트’를 즐겼다. 그리고 12시간 만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기는 영양실조로 죽어 있었다.”

세계적 법학자 조엘 바칸이 또 하나의 문제작 ‘기업에 포위된 아이들’을 내놓았다. 바칸은 이 책에서 아이들의 어린 시절을 농락하는 기업의 탐욕스러운 경제활동에 반기를 든다. 기업이 아이들을 어떻게 매수하는지, 그로 인해 우리의 미래가 얼마나 피폐해질 수 있는지를 파고든다. 한마디로 ‘존슨스베이버 로션’, ‘마이크로소프트 게임’, ‘맥도널드 해피밀 세트’ 등 내 아이가 보고, 듣고, 만지고, 먹는 것들의 유해성에 관한 보고서다.

이 책은 바칸의 개인적인 고민에서 시작했다. 13살, 14살인 두 아이가 휴대전화를 사달라고 졸랐고, 바칸은 휴대전화가 수상한 사람으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선전하는 이동통신 업체를 신뢰하기 어려웠다. 그들은 휴대전화가 방사선과 그로 인한 종양, 선정적 콘텐츠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경제적 이익을 최상의 가치로 인정하는 시대에 우리 사회가 연약하고, 경력이 부족하고, 설득당하기 쉬운 소비자인 아이들을 제대로 배려하지 않고 있다고 경고한다. 벨슨 만델라는 “사회가 아이들을 대하는 방식만큼 그 사회의 정신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RHK·1만4000원>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세계 공산주의자들의 파란만장한 생애 속으로

‘혁명가들’

김학준 지음



현대사를 이끈 주요 인물 중에 이데올로기와 무관한 자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레닌, 티토, 호치민 등 수많은 지도자들이 공산주의자라 자임하며 국가를 장악해나갔다. 그 한편에는 트로츠키, 체 게바라처럼 혁명을 일궈나간 과정에서 비극적으로 목숨을 잃은 인물도 있었다. 폴포트, 스탈린, 차우셰스쿠처럼 국민들을 비극으로 몰아넣은 인물도 있었다.

공산주의 및 러시아혁명에 관한 전문가 김학준이 펴낸 ‘혁명가들:마르크스에서 시진핑까지, 세계공산주의자들의 삶과 죽음’은 20세기 현대사를 꿰뚫는 주요 공산주의자들의 생애를 집대성한 ‘공산주의자 열전’이다. 책은 저자가 지난 1997년과 1998년에 펴낸 ‘붉

은 영웅들의 삶과 이상: 소련과 동유럽 공산주의자들의 발자취’와 ‘동아시아 공산주의자들의 삶과 이상’을 통합해 펴낸 개정증보판이다.

책은 공산주의 창시자인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부터 현재 중국 최고지도자로 자리잡은 시진핑과 리커창까지 여러 혁명가들의 파란만장한 삶을 낱말이 추적하고 있다.

저자는 1980년대 중반부터 독일,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유고슬라비아 등을 탐방하며 공산주의 지도자들의 무덤을 직접 찾아가보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생생한 현장 방문 기록과 관찰담은 이 책을 백과사전식 정보 나열이 아니라 현장성이 가미된 입체적인 책으로 거듭나게 한다. <문학과지성사·4만5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41명의 철학자에게 듣는 유쾌한 철학 수업

‘만화로 보는 지상 최대의 철학 쇼’

프레드 반렌트·라이언 던래비 지음



‘소크라테스부터 자크 데리다까지.’ 무겁고 어렵게 느껴지는 철학을 쉽게 풀어쓴 책이 나왔다. ‘만화로 보는 지상 최대의 철학 쇼’는 동서고금을 아우르는 41명의 철학자의 유쾌한 입담을 통해 철학에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책이다.

베스트 셀러 만화의 글을 오랫동안 써온 프레드 반렌트가 쓰고 라이언 던래비가 그림을 그린 책은 ‘그리스인들이 다 해먹네-고대철학’, ‘종교가 지배하던 시절-중세 철학’, ‘침묵 앞에서 갈광질풍-근대 철학’, ‘무슨 무슨 주의가 판치는 한심한 우리 시대-현대철학’ 등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눠 이야기를 전개한다.

프리드리히 니체, 아리스토텔레스, 디오게네스, 마르크스, 쇼펜하우어, 사르트르 등 책에 등장하는 철학자들은 초인 사상, 실존주의 등 자신들의 논리를 풀기 위해 M-60을 든 랍모보 변신하고, 영웅의 옷을 입는 등 유쾌하게 변신한다.

책에서는 달마의 선불교, 이슬람교와 유대교의 신비주의, 조지프 캠벨 등 기존 철학사에서 좀처럼 다루지 않았던 인물과 사상도 함께 소개했다.

책 말미에는 용어해설을 따로 붙였다. 미국 도서관 협회 선정 ‘최고의 그래픽 노블’ 수상작이다. <다른·1만6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신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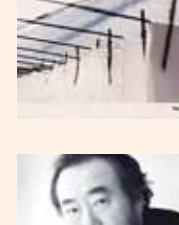
▲빅 데이터가 만드는 세상=뉴욕의 공무원들은 폭발 위험이 가장 높은 맨홀 뚜껑을 어떻게 알아낼까? 구글은 어떻게 신종 플루의 발병을 예측했을까? 이같은 질문에 답하기 위한 핵심 열쇠가 바로 ‘빅 데이터’다. 빅 데이터는 방대한 양의 정보를 고속 처리해 즉시 분석하고 그로부터 놀라운 결론을 도출해내는 능력이다. 책은 빅 데이터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 놓을지에 대해 분명하고 놀라운 설명을 담고 있다. <21세기북스·2만3000원>



▲임진왜란 비겁한 승리=저자 김연수는 제목에서처럼 우리의 상식 내지 믿음과 달리 임진왜란은 부끄러운 역사라고 말한다. 2년전 출간한 전자 ‘조선 지식인의 위선’에서 조선 최고의 사상가이자 큰 스승으로 존경받는 퇴계와 율곡 등 유학자들이 조선의 정치를 어떻게 망쳤는지를 보여 주었다면, ‘임진왜란 비겁한 승리’에서는 그 참혹한 결과물이 바로 임진왜란임을 제시한다. <앨피·1만6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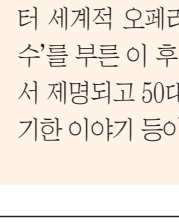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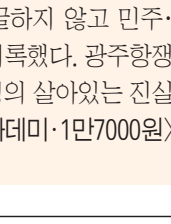
▲광주항쟁 부활의 역사 만들기=1980년 5월 18일에 폭발한 광주항쟁 부활의 역사를 기록한 책. 광주항쟁의 발발과 전개 과정을 비롯해 광주항쟁을 은폐하고 왜곡하려는 지배권력의 극심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민주정의·인권을 위해 계속된 5월운동의 전 과정을 기록했다. 광주항쟁에 대한 그릇된 역사 인식을 바로잡아줄 광주항쟁의 살아있는 진실이 담겨져 있다. <한울이카데미·1만7000원>



▲어느 날 우리는 돌아오기 시작했다=사랑과 결혼, 그리고 헤어짐에 관한 위험한 인터뷰. 과학 다큐멘터리 감독이 수백 명의 이혼남녀를 만나 완성한 미국판 ‘사랑과 전쟁’. 저자의 호기심에 출발한 발칙하고 리얼한 인터뷰는 이 시대 남녀의 만남과 헤어짐, 사랑과 결혼에 대한 중요한 단상을 기록하며 현명한 결혼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게 만든다. <중앙mb·1만4000원>



▲한지, 날다 꿈다=전북 완주 소양면 대승한지마을로 떠나는 한지 여행. 한지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좋은 물과 다나무가 많은 완주에는 기계에서 만들어지는 가짜 한지가 아닌, 사람의 손으로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진짜 한지가 여전히 존재한다. 평생 ‘진짜’ 한지를 만들어 살아온 사람들의 삶을 조명하고 한지를 만드는 과정을 사진과 함께 상세히 보여준다. <해피스토리·1만7000원>



▲테너 박인수의 삶과 음악=국내·외 오페라 무대에서 300여회 주역으로 활동하고 2000여회 개인 콘서트를 개최해 국민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테너 박인수 교수의 개인전 에세이집이 출간됐다. 어린 시절부터 세계적 오페라 무대의 주역 테너로 활동한 이야기, 국민가요 ‘향수’를 부른 이후 클래식 음악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국립오페라단에서 제명되고 50대초 목소리를 잃어버린 후 벨칸토 창법을 연구해 재기한 이야기 등이 진솔하게 기록돼 있다. <지성과학사·1만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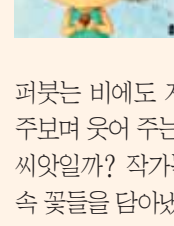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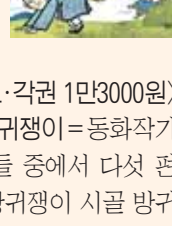
▲스토리텔링 초등 한국사 교과서 1~3=초등 역사교과서도 신생년들과 어린이책 작가 한정영이 함께 지은 책. 1권 ‘선사 시대부터 삼국 시대까지’, 2권 ‘고려 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 3권 ‘동학농민 운동부터 현대까지’로 나뉘어져 있다. 딱딱한 한국사를 우리나라의 ‘성장 스토리’로 바라보면서, 입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스토리텔링의 방식으로 풀었다. <북멘토·각권 1만3000원>



▲서울 방귀쟁이 시골 방귀쟁이=동화작가 임정자가 수많은 옛이야기를 중에서 다섯 편을 골라 다시 쓴 책. ‘서울 방귀쟁이 시골 방귀쟁이’와 ‘한백이의 호랑이 사랑’, ‘삼두구미를 이진 막내’, ‘논두렁으로 종가래 끌고 가는 자는’, ‘이야기 주머니’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쉽고 구수한 우리 입말을 살려 풀었다. <별숲·9800원>



▲코는 냄새만 맡을까? =콧속에는 왜 코털이 있을까? 냄새를 맡지 못하면 왜 맛을 느낄 수 없는 걸까? 코는 알면 알수록 많은 일을 하는



재주꾼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도와주는 인체과학 그림책. 어린이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코에 관한 모든 과학적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함께 담았다. <내인생의책·1만2000원>

▲너는 어떤 씨앗이니? =그림책 작가 최승희가 세상 모든 아이들에게 건네는 따뜻한 격려의 메시지를 담은 그림책. 온 마을에 향기를 퍼뜨리는 수수꽃다리, 따가운 햇살에도 퍼붓는 비에도 지지 않는 봉숭아, 누구라도 마주보며 웃어 주는 접시꽃... 너는 어떤 꽃을 품은 씨앗일까? 작가는 우리 옛 그림을 사용해 마음속 꽃들을 담았다. <책읽는곰·1만1000원>

▲너와 나를 잇는 다리=같은과 다름을 이어주는 다문화 그림책. 아일랜드에서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다문화 교육을 위해 기획 출간된 그림책 4권을 엮은 시리즈다. 1권 라두 아저씨가 남긴 선물, 2권 로베르토의 소원 나무, 3권 올란나의 목도리, 4권 창밖의 두 번째 설날을 통해 다문화 시대에 함께 키워 나가야 할 미덕들을 일깨워준다. <초록개구리·각권 1만1000원>

어린이 책꽂이